



## 목양 칼럼

### 2세 목회자를 키워야 합니다.

2세 목회자를 키워야 합니다.

지난 주에 CTS 뉴욕방송 후원이사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목회자들과 함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2세 목회자를 찾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민 교회 현실상 유년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장년부 등 적어도 세 명의 2세 목회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이 세 목회자를 보유한 교회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집 광고를 내어도 전혀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1. 이유가 무엇인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이제는 이민이 끊어지고 2세들이 이민교회에서 자라고 있는데 1세들이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2세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인 2세들이 신학교를 가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세속화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영적 침체에 와 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미국의 우수한 신학교들도 학생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신학교 캠퍼스를 팔고 빌딩을 하나 마련하여 운영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1.5세나 2세 한인 학생들의 경우 신학교를 졸업한 후 5년이 지나면 약 50%가 목회를 떠나 일반 직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목회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경제적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더 큰 이유라고 합니다.

2.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첫째, 외부에서 광고해서 구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체 내에서 미래의 2세 지도자들을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광고해서 온 교역자들이 교회를 직장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능한 목회자를 모셔서 짧은 시간에 부흥을 기대하는 상업주의적 망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타 목회자를 모시기에 교회마다 경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온 목회자는 섬김과 헌신보다는 대접 받는 데 익숙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스타를 모셔도 부흥하지 않으면 조금해진 성도들의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첫째,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해 에스더 전도사님과 알빈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키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에스더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18년 동안 유년주일학교에서, 알빈 목사님은 15년 동안 유스그룹에서 교회학교를 든든히 지켜오고 계십니다. 둘째, 제2의 제3의 에스더 전도사님과 알빈 목사님과 같은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자질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신학교 장학금을 보조해서라도 미래의 지도자를 길러야 합니다.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는 세상 직업을 가지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섬길 지도자도 이제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중 직업(bi-vocational)이라는 용어로 요즘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세 목회자를 키워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본당
	2부 예배	오전 9:30	본당
	3부 예배	오전 11:00	본당
	영어 예배	오후 1:00	본당
	주일 찬양 예배	오후 2:3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자훈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일학교	영아부(3세 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미정(T.B.D)	친교실	
Mommy & Me	미정(T.B.D)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 VISION 2022 EVANGELISM MARCH

###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이민가정의 치료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 성령강림주일

제 31권 23호 주후 2022년 6월 5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민목사	채문권목사	김중훈목사
신앙고백	다같이		
찬송	183장, 191장		
기도	강성식집사	지재홍장로	전용수장로
성경봉독	행 19:1-7		
찬양	예일관악단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김중훈목사		
찬송	630장		
봉헌	다같이		
환영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수요예배 6월 8일 오후 8:30

- 기도: 강희선집사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주 기도: 김경미권사

##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 주일 기도

- 1부: 박용훈집사
- 2부: 윤희주장로
- 3부: 김동환장로

## 6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전미경권사
- 3부: 이규희권사 심성실권사

예배 및 헌금 안내

-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수요예배:** 5선교회헌신예배
- 본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까지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만, 현장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 1부 예배는 본당(현장)예배로 드리겠습니다(온라인 서비스 없음).
  - 2, 3부 예배 및 CCM 예배는 본당 예배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수요예배와 새벽예배는 모두에게 오픈하고, 온라인예배 병행합니다.
  -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 우편주소: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 **담임목사동정:** 오늘 오후5시 뉴욕장로교신학대학(원) 졸업식 참석
- **5월 성경통독&다독자 보고:** 통독 6명, 다독 132명.  
\*통독 및 다독자 상품을 목장별로 친교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년교육사역부)
- **신학교주일:** 뉴욕장로교신학대학(원)을 위한 특별헌금을 헌금함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 예일여름학교 안내:** 7/5-8/12(6weeks, Mon - Fri 9:00-3:00)  
\*Pre-K to 6th Graders in September 2022  
\*Register link and more information available at <https://yalechurch.org/v3/elementary>  
\*For questions email at [yalediscipleland@gmail.com](mailto:yalediscipleland@gmail.com) 담당: 박에스터전도사
-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
  - 강단꽃:
  - 사랑의 식탁: 이경섭&이상희집사(크리스생일)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11am Service).  
Zoom QR Code for Sermon Translation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왕하 4:1-7)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5:13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난한 생도 과부의 위기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빛을 갠 길에 없어 빛 준 사람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르짖으며 이 상황을 알립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기름 한 그릇 뿐이라고 하니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니 빈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그쳤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을 팔아 빛을 갠 아들과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1. **인생에는 위기가 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도 그 과부의 사정을 듣고 애만 댔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전염병, 경제 위기, 전쟁, 총기 사건 등 끊임없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들이 몰려 옵니다.
2. **위기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 1)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
  - 2)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2절).  
없는 것을 원망 말고 기름 그릇 하나라도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 3)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  
곧 기적을 일으킬 그릇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히 11:6).  
준비한 그릇만큼 기름이 찰 것입니다.(예배시간)
  - 4)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세상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 5) 기름을 부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붓는 그릇마다 가득 찼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갈 2:20).

[결론]  
축복의 양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축복은 쌓입니다. (무디 목사님 이야기)  
위기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합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순종으로 굽힙니다. 살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우동정

- 한국방문: 윤희주장로

행사예고

- 6/12(주일) 정기당회
- 6/26-7/2 Workcamp(Wethersford, CT)
- 7/3(주일) 졸업예배

방송설교

- KRB FM 87.7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
- CSN ([www.csntv.net](http://www.csnt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 K-Radio AM 1660 (라디오): 매주 수요일 오후 12:54 (목회자 칼럼)